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텅 빈 공간에서 가임의(pregnant) 코라 공간으로

이 현 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철학사와 과학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간 개념, 즉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과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개념들이 사회학적 맥락에서 각각 배타적 힘을 행사하는 권력구조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변형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필자는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공간의 이분법적 젠더구조와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하는 여성주의 담론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공간을 낙약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담론에서 여성 공간은 자체 내의 구조적 힘을 갖지 않는 텅 빈 용기로 그려지거나 남성적 자본주의적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는 기능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배적 공간 구조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여성 공간의 적극적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플라톤의 코라(chōra) 공간과 김슨-그래함의 가임의(pregnant) 공간을 검토하였다. 코라는 한편으로는 이데이라는 구조적 힘을 받아들여 사물을 생성시키는 새김바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규정적 힘들로 가득 차있으며 이 힘을 통해 기존의 구조적 질서를 뒤흔든다. 이런 점에서 코라 공간 개념은 여성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힘과 이 힘에 다시 반작용을 행사하는 힘들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코라 공간에 내재한 무규정적 힘이 단순히 무질서나 혼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관계를 생산하는 힘이라는 점은 김슨-그래함의 가임 공간 개념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주제어: 상대적 공간, 절대적 공간, 여성 공간, 코라, 가임의 공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feminphil@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2012) pp.41-69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

현대 이론이 소위 “공간적 선회”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공간” 개념은 지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문학자들과 사회학자들까지도 채택하는 분석의 범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때로는 물리적 혹은 자연적 공간을 지칭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간”은 단지 비유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학문분야들을 관통하여 나타나는 “공간” 개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가?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간 개념은 무엇인가? 젠더 관점에서 공간을 분석할 때에도 “공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는가? 여성의 몸이나 가정 공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공간”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가? “여성 공간”이라고 말할 때 “공간”은 공간 일반을 이야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도시 공간에서 젠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할 때 여성 “공간”은 도시 “공간”과 같은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여성 “공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해왔으며 또 어떠한 의미를 함축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여성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왔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마르쿠스 슈뢰르(Markus Schroer)와 함께 철학사와 과학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간 개념, 즉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과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개념들이 사회학적 맥락에서 각각 배타적 힘을 행사하는 권력구조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변형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공간의 이분법적 젠더구조와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하는 담론들이 여성 공간을 예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이 경우에 여성 공간은 자체 내의 구조적 힘을 갖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그려지거나 남성적 자본주의적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는 기능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여성 공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결국 지배적 공간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행위자성(agency)을 차단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여성 공간에 행해지는 공간의 구조적 힘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여성 공간의 행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마지막으로 플라톤(Plato)의 코라(chōra) 공간 개념과 깁슨-그래함(Gibson-Graham)의 가임의(pregnant) 공간을 분석할 것이다. 코라는 한편으로는 이데아(Idea)라는 구조적 힘을 받아들여 사물을 생성시키는 새김바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내의 무규정적 힘들을 통해 기존의 구조적 질서를 뒤흔든다. 이런 점에서 코라-공간 개념은 여성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힘과 이 힘에 다시 반작용을 행사하는 힘들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코라 공간에 내재한 무규정적 힘이 단순히 무질서나 혼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관계를 생산하는 힘이라는 점은 깁슨-그래함의 가임(pregnant) 공간 개념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즉 여성 공간을 가임 공간으로 파악하면 우리는 이 공간이 지배적 담론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고 배열되는지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공간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들을 통해 어떻게 탈구되는지, 나아가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생산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절대적 용기 공간과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

우선 철학과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공간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마르쿠스 슈뢰르에 따르면 철학과 과학사에는 공간에 대한 수없이 다양한 설명이 등장하지만 공간에 대한 논쟁을 쫓아가다보면 우리는 두 개의 공간 개념, 즉 절대주의적 공간 개념과 상대주의적 공간 개념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슈뢰르에 의하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전자를 “모든 물리적 대상의 ‘용기(容器, container)’로서의 공간”으로 후자를 “물체세계의 저장성(Lagerungsqualität) (Einstein, 1960: XIII; 슈뢰르, 2010: 31에서 재인용)”으로서의 공간으로 대립시켜 파악한 바 있다.¹⁾ 다시 말해서 공간은 물리적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체세계에 경계를 부여하는 절대적 용기이거나, 물리적 대상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체세계들의 상대적 관계질서로 이해되곤 하였다.

여기서 전자의 절대적 용기-공간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공간이 물체를 담는 용기 혹은 수용기라는 생각은 매우 오래된 사고이며 아직도 우리의 일상적 언어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우리는 용기를 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체가 용기에 담겨 있다고 표현한다. 슈뢰르에 따르면 공간을 물체로부터 구분되는 수용기 혹은 용기로 생각하는 방식은 고대의 원자론자들의 공간관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원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자들을 담는 텅 빈 허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원자와 원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은 분리된다. 물체와 분리되는 용기로서

1) 여기서 슈뢰르는 용기로서의 공간을 물체세계의 저장성으로서의 공간 뒤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역사적 등장 시기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논문에서 양자의 순서를 바꾸어 고찰하고자 한다.

의 공간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범주론』에서 공간은 “몸으로 점유하는 모든 장소의 총합(슈뢰르, 2010: 34)²⁾”으로 간주되며, 『자연학』에서 장소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물체의 경계(Aristoteles, 1995: 84, 212a; 슈뢰르, 2010: 35에서 재인용)”로서 “그 사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Aristoteles, 1995: 81, 211a; 슈뢰르, 2010: 35에서 재인용).” 야머(Max Jammer)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둘러싸는 그릇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반면에, 이것은 둘러싸여진 내용을 떼어낼 때 계속 바뀌는 물체와 구분된다(야머, 2008: 58).” 여기서 공간은 원자론자들이 말했던 허공은 아니지만 질적 다양성의 담지자가 되며 속이 찬 컨테이너로 나타난다.

슈뢰르에 의하면 뉴턴(Isaac Newton)에 이르러 용기-공간 개념은 좀더 확실하게 절대적 기준계로서의 힘을 획득하게 된다. 뉴턴이 주장하는 절대적 공간 개념에서 공간은 “외적 사물과는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며 부동하고, 그럼으로써 변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슈뢰르, 2010: 39)”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변의 공간이 상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듯이 뉴턴 역시 물체의 관성과 같은 절대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물질로부터 독립된 부동의 절대적 공간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용기-공간이 절대적 공간 개념과 결합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된 것은 공간이 언제나 명료함, 확실성을 보장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최종단계의 엄밀성, 즉 궁극적 진리는 이 절대공간과 관계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야머, 2008: 192).” 이로써 절대적 용기 공간은 하나의 절대적 기준점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며 사물들은 이를 기준으로 그 경계와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2) 야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이 “모든 장소의 총계”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야머, 2008: 64).

이와 달리 공간을 물체가 가진 저장성질이라고 보는 두 번째의 이해 방식은 물체와 분리된 공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간 자체가 갖는 객관적 힘은 없다. 뉴튼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공간 개념을 제시했던 라이프니츠(G. W. Leibniz)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모나드(monad)이며 이는 분할될 수 있는 연장적 존재가 아니므로 이를 담지하는 별도의 공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이프니츠에게 공간은 사물들 간의 “위치관계”일 뿐이며 “모든 사물의 ‘위치관계’는 ‘각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도출된다(슈뢰르, 2010: 43).” 『모나드론』의 § 57을 살펴보자.

“§ 57. 같은 도시일지라도 도시를 보는 위치에 따라 전망이 다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주를 보면 무수한 단순실체의 다원성으로 인해 무수히 다양한 우주의 전망이 발생하게 되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들은 각 모나드의 관점에 따라 오직 하나뿐인 우주를 표상함에 불과하다(라이프니츠, 2007: 48-49).”

이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이미 “상대주의적 공간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관점 다양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각 시점에 따라 관찰자에게 공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Löw, 2001: 28). 이러한 생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된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물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공간은 “물리적 대상들의 관계적 질서(야머, 2008: 48)”일 뿐이다.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정될 뿐이다.

필자의 논의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공간 개념이 사회 이론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가이다. 슈뢰르는 철학과 과학사를 관통하는 이러한 대립적인 공간 개념이 근대 서구의 사회이론에서 사회

적 공간을 분석할 때에도 나타난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물리학자들과 달리 사회적 의미체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에는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이들은 사회적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사회 공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³⁾ 그러나 슈뢰르에 따르면 일군의 사회학자들 역시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을 수용한다. 절대적 공간을 상징하는 사회이론들은 개별 행위자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독자적 사회구조로서의 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이 여전히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절대적 한계와 자리를 지시하고 있다고 본다.⁴⁾ 반면 상대적 구성적 공간을 상징하는 사회이론들은 모든 사회적 공간들이 행위자들이 처한 상대적 위치일 뿐이라고 본다. 전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공간은 여전히 “사물들이 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확고한 자리를 가지는 하나의 껍이나 상자, 수용기(container)”인 반면,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조작을 통해 비로소 한 공간이 구성된다”고 여긴다(슈뢰르, 2010: 50). 전자의 절대적 용기-공간 개념은 공간과 행위자를 구분하고 공간이 행위자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의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은 공간이 인간의 관점과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변적인 힘의 장임을 강조한다.

사회학의 맥락에서 절대적 용기-공간 개념은 인간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의 “구조”나 “물질성”과 연결된다. 물리적 맥락에서 절대공간이 그에 담긴 물체보다 “상위의 실재(슈뢰르, 2010: 31)”로 나타나듯이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한 공간 구조는 그 안에서 행위하는 인

3) 물론 자연지리학자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이론에서 산이나 강,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국경이나 행정적 공간분할을 언급할 때에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적 의미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여기서 사회 공간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척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의미가 지배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슈뢰르에 따르면 가령 교회와 같은 장소는 그 공간에 들어선 행위자들에게 특정한 행위양식을 강제한다.

간들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또한 독자적인 “물질성”을 갖는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여기서 물질성이란 개인의 의도나 행위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없는 강력한 법칙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사회를 절대적 자본주의 공간으로 파악하는데 이 때 자본주의적 공간은 개별 행위로부터 독립된 물질성을 갖는 구조로서 모든 사회적 대상 혹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이 공간에 반작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상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공간의 건설 및 공간의 구성에서 행위자의 창조적인 가능성과 기회가 강조된다(슈뢰르, 2010: 196-197).”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하는 이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독립된 구조와 같은 공간은 없으며 모든 사회적 공간은 인간의 구성물이다.

이와 더불어 한 사회이론이 어떠한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때 핵심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한 공간에 하나의 대상물 혹은 하나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한 공간에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행위자들이 공존하는가이다.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에 따르면 “공간의 위치는 오로지 하나의 대상물, 사물 혹은 인간에 의해 취해질 수 있으므로 두 번째 개체가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이전의 소유자를 쫓아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슈뢰르, 2010: 196).” 이와 달리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힘들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절대적 힘을 행사하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별자의 행위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는 공간의 배타성에 대한 주장과, 후자는 공간의 이질성에 대한 주장과 연관될 수 있다.

3.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은 여성 “공간”

물리학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논쟁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충돌에서는 뉴턴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러나 슈뢰르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공간관의 변화는 아직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슈뢰르, 2010: 50).” 사회학은 상대적 공간 개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슈뢰르에 따르면 그 이유는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이 여전히 한 공간에 지배적인 권력구조와 배타성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슈뢰르, 2010: 196).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은 공간 건설에 있어 행위자들의 참여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한 번 형성된 공간적 구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배적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많은 사회과학적 담론들은 여전히 용기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이유에서 공간을 지배하는 젠더권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적지 않은 여성주의 담론들은 공간을 절대적 용기로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행동거지와 행위, 커뮤니케이션을 각인시키고 선구조화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슈뢰르, 2010: 198)”을 강조한다. 가령 이러한 담론에서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들에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각인시키며,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돌파구로서의 도시 공간은 여성을 가내 공간, 재생산, 사적 공간, 소비 공간에 위치시킨다.⁵⁾ 여기서 가부장적 국가 공간이나 자본주의 도시 공간은

5) 전자의 사례로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을 들 수 있다. 가령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은 사회를 가부장제적 성별체계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공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사

차체 내의 지배적인 권력구조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절대적이어서 오직 하나의 배타적 사회적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이와 다른 이질적 의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는 지배적 사회구조에 봉사하거나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에 의지하는 이러한 여성주의 담론들은 두 가지의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우선 그들은 가부장적 혹은 자본주의적 공간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배타적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그러한 개념으로 인해 여성들이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 구조가 행사하는 권력을 강력하게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간 구조 안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창발적 행위자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이론들에서 여성의 몸이나 가정과 같은 여성 “공간”은 가부장적 혹은 자본주의적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여성과 관련된 공간이 문제시되는 순간 “공간”은 강력한 구조적 힘을 갖는 절대적 용기 공간도, 행위자의 구성적 힘을 용인하는 상대적 구성주의적 공간도 아닌 텅 비어 있는 수동적 용기 공간으로 혹은 자본주의의 기능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에서 공간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던 반(反)공간 정치학은 남성이 강력한 힘을 갖는 젠더 이분법

회 공간을 관통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과장함으로써 남성은 항상 지배적 역할을, 여성은 항상 종속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확정짓는다. 김순-그래함에 따르면 후자의 사례로는 도시에서의 여성 경험과 현대 도시 구조 이론에 토대를 두고 젠더화된 행동패턴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탐구하는 행동주의 지리학자 윌슨(Wilson E.), 새거트(Saegert S.), 잉글랜드(England K.) 등을 들 수 있다.

의 구조 공간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주의 정치담론이다. 여기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남성이 절대적 힘을 갖는 용기-공간으로 전제된다. 즉 강간 공간은 남성과 여성에게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역할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조적 힘을 갖는다. 이는 마커스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강간의 공간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을 유발하며, 두려워하는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며, 남성들은 자신을 합법적으로 폭력적이며,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위치로 초대하게 된다. 강간의 언어는 물리적 행동이나 대응뿐 아니라 말까지도 구조화한다. 또한 이 언어는 잠재적 강간범들이 가질 법한 권능의 기분이나, 강간의 위협을 느낄 때 여성들이 공통으로 가질 법한 마비의 증세와 같은 형식을 구조화한다 (Marcus, 1992: 390).”

그렇다면 여성의 몸은 어떤 공간으로 표상되는가? 이러한 강간 스크립트에서 여성의 몸은 무력하게 남근의 침입에 희생되는 텅 빈 내부공간으로 혹은 부재의 장소로 표상되며 남성의 몸 혹은 남근은 여성의 몸을 강간하는 무도하고 강력한 무기로 나타난다.

“강간 스크립트는 여성의 몸을 취약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관통가능하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침입이나 침략과 같은 강간에 대한 은유는 이러한 정의를 강화한다. 이러한 속성 은유를 심리학적으로 추론하게 되면, 여성적 섹슈얼리티는 내부 공간으로, 강간은 이 내부 공간에 대한 침입으로, 그리고 반강간 정치학은 이 내부 공간을 어떤 외부적인 것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전체적인 여성의 몸은 질(vagina)로 상징화 되며, 불가피하게 손상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내부 공간으로 인지된다(Marcus, 1992: 398).”

여기서 필자는 여성의 몸이 “허약한 내부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의 몸 “공간”은 강간 공간이라고 말할 때의 “공간”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의 몸은 언제든지 남근이 침입될 수 있는 용기나 수용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구조적 힘을 행사하는 절대적 강간 공간과 달리 텅 비어있는, 무력한 용기이다. 그것은 남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허이다. 그 시점까지 여성의 몸 안을 채우는 사회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 시점까지 여성의 몸 안에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비어있음”이다. 여성의 몸은 “공간” 그 자체이지만 이와 분리될 수 있는 행위자를 갖지 않는다. 여성의 몸이 그 몸을 채우는 행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강간의 시점에서만 가능하다. 강간과 동시에 여성 공간은 이를 침입하는 행위자로 채워진다. 다시 말해서 여성 공간을 채우는 물체 혹은 행위자는 오직 남근뿐이다.

여기서 공간 자체인 여성의 몸은 절대적 용기-공간에서 전제되는 구조적 힘과 같은 것은 갖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거나 남근에 의해 침입되고 정복되는 무력한 무(無)이다. 강간의 경우 여성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남근이며 여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이에 침입해 오는 남성의 공간의 힘이다. 여기서 필자는 공간 개념이 비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의 몸은 허공이지만 남성의 몸은 행위자로 채워진 절대 공간이다. 여성 공간은 결코 절대적인 구조가 아니지만 여성 공간을 침범하는 남성행위자들은 구조적 힘을 이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주도적 공간의 배타적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간 공간에 대한 담론은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여성의 행위자성을 차단한다.

절대적 용기-공간을 전제로 젠더 공간을 분석하는 이론들이 이와 같은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은 몇몇의 여성주의 도시이론들⁶⁾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이론들은 도시 공간을 자본주의와 이분법적 젠더 담론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도시 공간의 힘은 젠더 역할을 제한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한다. 가령 행동주의 지리학이 제공하는 그림에서 여성은 “가내 공간, 이웃 공간, 지역의 상업 공간 등을 점유하고 있으며, 남성은 도시 중심부의 산업 지구나 상업 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Gibson-Graham, 2006: 78).”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여성 “공간”이 도시 “공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 공간은 자본주의적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노동력의 재생산 공간으로 간주되거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종결시키는 소비 장소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같은 여성 공간은 자체 내에 독자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공간의 기능적 부분이 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간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 “공간”은 어떤 개념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가? 그것은 강간 공간에서의 여성의 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사회적 행위자도 담지 않는 텅 빈 용기인가? 여기서 깃슨-그래함은 여성 공간이 “상대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고 본다. 여성 공간을 소비 공간으로, 여성 행위자를 미래 자본주의 노동력의 창조자이자 사회화 담당자로 재현하는 이러한 도시 담론 안에서 여성은 “수동적 그릇이라기보다는 적극적 배우(active player)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녀들에 따르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의 공간은 “더 이상 동질적이지도 비어있지도 않은(Gibson-Graham, 2006: 79)” 공간이다. 여성 공간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중요한 구성인자이며 여성 행위자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여성 공간은 재생산/양육/소비의 기능을 통해 자본주의를 보충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여성 공간은 도심과

6) 각주 5)에서 후자의 사례로 언급되었던 행동주의 지리학자들의 작업을 일컫는다.

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김슨-그래함이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이라는 용어가 앞서 필자가 슈뢰와 함께 정리했던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성 공간은 젠더 이분법과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지만 도심 자체는 여성 공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공간은 항상 자본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본주의의 “배경” 혹은 자본주의의 보충물 등으로 정의되지만 자본주의 공간으로서의 도심은 그 자체의 척도와 논리에 따라 규정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 공간의 위상은 비대칭적이다. 김슨-그래함 역시 상대적 여성 공간의 규칙이 일방적으로 “대문자 자본(Capital)”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Gibson - Graham, 2006: 79). 따라서 여기서 여성 공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기능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성 공간을 상대적 공간이라고 파악한다고 해도 여기서 여성 공간은 변화와 차이를 생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구성적 공간으로 파악될 수 없다. 즉 여기서 여성들은 자본주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를 전복시키거나 변화시킬 차이를 생산하지 않는다. 김슨-그래함 역시 분명히 하고 있듯 여기서 여성들의 행위는 “남근이나 대문자 자본에 의해, 혹은 그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Gibson - Graham, 2006: 80).”

4. 텅 빈 용기에서 코라(chōra) 공간으로

이상으로 필자는 위계적 젠더 이분법이나 자본주의적 구조를 비판하고자 했던 많은 여성주의 담론에서 여성 공간이 구조적 힘을 갖는 절대적 용기 공간으로도 상대적 구성적 공간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담론에서 여성 공간은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 텅 빈 용기이거나 절대적 공간구조와의 기능적 관련 속에서 규정되는 고정된 상대 공간이 되어 버린다. 즉 이 담론들은 젠더 위계의 강력한 구조를 비판하기 위하여 강간 혹은 도시 공간을 절대적 용기-공간으로 파악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 공간을 나약하고 무기력한 허공이나 기능적 상대 공간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여성 행위를 통한 변화와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공간의 힘을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 물질성을 갖는 남근중심적 혹은 자본중심적 공간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여성 공간도 철저하게 절대적 용기-공간으로 혹은 상대적 구성적 공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가?

우선 여성 공간을 절대적 용기-공간으로 규정해 보자. 여성의 몸을 텅 빈 용기가 아니라 구조적 힘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가정과 같은 여성 공간을 독자적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구조로 생각해 보자. 여기서 여성 공간은 더 이상 수동적이거나 침범 당하는 희생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권력의 지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여성 공간과 나란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절대적 공간 즉 남성적 공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 공간과 남성 공간을 포괄하는 사회적 공간에는 어떤 구조가 관철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포괄적 사회 공간 자체도 절대

적 공간이라면 여기에서 구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의미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공간이 갖는 배타성이다. 그렇다면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은 포괄적 사회 공간의 주도권을 두고 투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여성 공간이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 공간을 절대적 기준계로 삼아 여성 공간에 의해 모든 공간이 통일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이러한 공간 개념은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의 상대적 차이뿐 아니라 여성 공간 내에서의 차이들을 사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절대적 공간은 모든 것을 하나로 표준화한다. 여기서 표준은 복수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지표가 된 여성 공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타자 공간을 규정하거나 자기 내부의 타자들을 삭제하는 배제의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그동안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공간을 철저하게 상대적-구성주의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공간 개념은 모든 공간을 상대적인 위치로, 인간 행위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이해방식에 따라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과의 관련 속에서 그 위치가 파악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도심과 교외 역시 서로 간의 관련 속에서 규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위치조차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해 보자. 한 공간 안에 다양성과 이질성이 공존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나 이러한 공간 이해 역시 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 공간이 어떻게 위계적 젠더 이분법과 자본주의에 의해 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1) 여성 공간에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구조의 힘을 비판하면서도 여성 공간 자체를 무력한 공간으로 파악하지 않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즉 젠더 이분법 구조의 힘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여성 행위자들의 구조 변형적 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나아가 여성 공간은 하나의 배타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성과 차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차이와 다양성을 사상하지 않는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3의 가능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필자는 우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공간 개념을 단초로 삼고자 한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존재와 생성 이외에도 세계를 형성하는 제3의 부류로서 공간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간은 구조적 힘과 이를 뒤흔드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저서에서 플라톤이 세계를 구성하는 부류들을 설명할 때 존재/생성의 이분법이 아니라 존재/생성/공간의 삼분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보자. 그가 말하는 세 가지 부류란 “생성되는 것, 그리고 이 생성되는 것이 그 안에서 생성하게 되는 곳인 것, 그리고 또한 생성되는 것이 태어남에 있어서 닮게 되는 대상(플라톤, 2000: 50d)”이다. 나아가 그는 생성되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창조물인 자식에,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을 어머니에, 그리고 본받게 되는 대상을 아버지에 비유한다(플라톤, 2000: 50d). 플라톤은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을 헬라스어로 공간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코라(chōra)의 종류(플라톤, 2000: 52a)”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생성된 것의 어머니(플라톤, 2000: 51a)”, “생성의 유모(플라톤, 2000: 52d)” 등으로 비유된다.

그렇다면 물질을 생성가능하게 하는 공간, 어머니의 몸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는 코라란 무엇인가? 코라는 절대적 용기-공간인가, 상대적

구성적 공간인가? 언뜻 보기에 코라는 용기-공간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코라 공간은 그에 담긴 물체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용기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물체는 이데아의 모방물들이고 코라는 다양한 물체들을 수용하는 “새김바탕(ekmageion)(플라톤, 2000: 50c)” 혹은 “생성의 수용자(hypodochē)(플라톤, 2000: 49a)”이다. 수용자로서의 코라는 물질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물체와 달리 “[자기] 소멸은 허용하지 않는(플라톤, 2000: 52b)”다. 이런 점에서 코라 공간은 존재나 생성과는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⁷⁾

그렇다면 코라는 절대적 공간인가? 그것은 경계를 규정하고 한계를 정하며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구조적 힘 혹은 물질성을 갖는가? 플라톤의 공간이 이와 같은 질서부여의 힘을 갖고 있음은 그가 공간을 “흔들림을 제공하는 기구(플라톤, 2000: 53a)”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 따르면 “마치 고리버들 세공의 키나 곡식을 가려내는 일과 관련된 기구들처럼(플라톤, 2000: 52e)” “그 자체가 운동을 하게 된 수용자”는 “흔들리게 된 네 가지 부류의 것들 중에서 가장 닳지 않은 것들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고, 가장 닳은 것들은 같은 곳으로 최대한 모이게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것들은 서로 다른 지역(공간)을 점유하게 된다(플라톤, 2000: 53a).” 다시 말해서 코라에 내재한 힘은 비슷한 것을 같은 장소에 다른 것을 다른 장소에 분류하여 질서를 잡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막스 야머에 따르면 플라톤에게서 이러한 기준은 물체들이 갖고 있는

7) 존재 및 생성과 구분되는 공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현재(2010), “지워진 여성의 몸-코라와 물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10-11쪽을 참고하십시오.

형상 혹은 기하학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물체들은 기하학적 구조 혹은 신이 부여한 “도형(eidos)들과 수(arithmos)들(플라톤, 2000: 53b)”로 이루어진 형태를 갖는데 이로 인해 물체들은 서로 닮은 것들이 한 데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머는 “기하학적 구조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선택적 인력’으로 불렀던 것의 목적인(目的因)(야머, 2008: 54)”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공간의 질서는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형성되며 공간의 운동은 이런 구조를 작동시키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물체들을 그것이 가진 형상 혹은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하여 배열하며 이런 점에서 공간은 절대적 구조를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필자는 코라의 힘을 절대적 기하학적 구조와만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야머의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코라가 기하학적 질서 이전의 힘, 혹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힘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야머의 설명에 따르면 플라톤에게서 공간의 질서나 구조는 오직 이데아, 이성(logos), 지성(nous)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으며 공간은 이에 따라 물체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운동을 할 뿐이다. 그러나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지성의 힘 이외에도 우주의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는 코라의 힘을 전제하고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코라는 물, 불, 흙, 공기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운동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dynamēis)(플라톤, 2000: 52e)”로 가득 차 있다. 코라의 이러한 힘들은 지성에 독립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이 힘은 우주가 질서를 갖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힘들로써 “비례(비율:logos)도 없고 척도(metron)도 없는(플라톤, 2000: 53a)”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to tēs plaōmenēs eidos aitiās)(플라톤, 2000: 48a)”라고 할 수 있다. 지성이 조화와 논리 그리고 질서와 관련된 운동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코라의 힘은 예측할 수 없는 무규정,

무질서, 불균형의 기원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플라톤의 코라가 두 가지 힘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고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기하학적 구조 혹은 이데아를 반영하는 공간 질서의 힘을 고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힘 역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공간에 담긴 물체들을 이데아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이와 “닮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생성되는 물체들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코라 공간을 구조적 힘과 반구조적 힘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본다면 이에 담긴 물체 혹은 행위자들 역시 이 두 개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가 재구성한 코라 개념에 따라 여성 공간을 이해하면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된다. 한편으로 코라로서의 여성 공간은 이데아를 “닮은” 질서를 수행하는 공간이며,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구조적 힘에 의해 규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 공간은 그 자체 내에 무규정적인 힘을 통해 이를 흐트러뜨린다. 다시 말해서 여성 “공간”을 코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공간을 위계적 젠더 이분법에 따라 질서지우는 구조적 힘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조적 힘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는 내재적 무질서의 힘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라 공간 개념은 여성 공간에 내재한 이질적 힘들의 공존 가능성을 설명한다. 코라에 내재한 무규정적인 힘은 형상의 타자, 차이와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5. “가임의(pregnant)” 코라 공간

이상으로 재구성한 코라 공간 개념에 따르면 공간은 자체 내에 모순

적인 힘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코라 공간에는 지배적 구조 공간의 힘과 이를 뒤흔드는 힘이 공존한다. 이 뒤흔드는 공간의 힘은 지배적 구조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능적 타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힘에 따라 운동하는 타자이다. 그러나 코라 공간이 갖고 있는 이질적인 힘은 단지 불확정성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플라톤의 저서 내에서는 그러한 이질적인 힘이 어떠한 새로운 형태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회 공간에서 이렇듯 서로 모순적 혹은 이질적인 힘이 공존 및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이질적인 힘들이 단지 부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에 필자는 김슨-그래함이 제안하고 있는 게임의 공간 개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슨-그래함은 “게임의”라는 수식어를 통해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긍정적으로 생산해 내는 여성 공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슨-그래함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담론들이 여성 공간을 대문자 자본주의(Capital) 혹은 대문자 남근(Phallus)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공간의 생산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에서 시작한다. 남근 중심적 사고 안에서 코라는 부당하게도 “남성의 자기재현의 조건이자 대문자 정체성의 조건이 되는 공간(Gibson-Graham, 2006: 84)”이거나 “심오한, 부족한, 불가사의한, 가려진, 유혹적, 탐욕적, 위협한, 파열적인 심연(深淵)(Grosz, 1995: 57; Gibson-Graham, 2006: 84)”으로만 이해됨으로써 코라 여성성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생산성(Gibson-Graham, 2006: 83)”은 침해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공간을 내재적 생산성을 갖는 공간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슨-그래함에게 이것은 여성 공간을 “다층적

여성 섹슈얼리티(multiplicity of female sexualities)(Gibson - Graham, 2006: 86)가 나타나는 공간으로, 나아가 이들 간의 “중층결정”을 통해 새로운 힘이 창출되는 “가임의 공간(Gibson - Graham, 2006: 84)”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슨-그래함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이질성과 다층성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여성 공간이 단순히 소비욕망이나 재생산, 생물학적 기능과만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레즈비언 공간, 매춘 공간, 빙고게임장, 클럽 공간, 헬스 스파, 보디빌딩이나 에어로빅 공간, 요양원 공간, 취미 공간 등과 같은 헤테로토피아(Gibson - Graham, 2006: 87)”를 생각해 보라. 김슨-그래함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은 이성애, 건강, 젊음, 아름다움 등과 같은 지배적 담론에 의해 규제되고 배척되는 여성 섹슈얼리티가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습 위반적 여성 섹슈얼리티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Gibson - Graham, 2006: 87).⁸⁾

여성 공간이 가임의 코라 공간이라는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김슨-그래함이 제시하고 있는 호주 탄광촌의 가정을 분석해보자(Gibson - Graham, 2006: 225). 그녀들에 따르면 이곳의 여성들은 탄광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요구하고 있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규범에 따라 가정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남성을 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정과 같은 여성 공간은 지배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섹슈얼리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반하는 여성

8) 여기서 김슨-그래함은 문과 그녀의 동료들(Moon et al.)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Queers in (single-family) space(1994, in *Assemblage*, 24. August, pp. 30 - 37)”을 참고로 하면서 교외의 집조차 이성애적 부부와 가족을 위한 규범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용기로 파악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가령 이들에 따르면 퀴어 생활은 이성애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공간을 가로지르거나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슨-그래함(Gibson - Graham, 2006)의 4장의 각주 24번을 참고하시오.

섹슈얼리티가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김슨-그래함은 호주 탄광촌의 광부 부인들의 사례를 통해 여성들이 어떻게 가부장적 착취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항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사례에 따르면 탄광회사는 광부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불규칙적인 교대근무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광부의 부인들은 그러한 조건이 가내의 착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다. 가내의 생산적 노동자로서 광부의 부인들은 자신의 봉건적 착취에 대항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논리의 확대에도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이라는 공간은 이미 반봉건적, 반자본주의적 규범을 생산하고 있는 가임의 공간이다.

여성 공간이 단순히 기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을 산출하는 가임의 공간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은 김슨-그래함이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식들을 제시하는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슨-그래함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 잉여노동을 자본가가 취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나 친인척 돌보기,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자원 봉사 등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적인 관계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호혜적 노동이나 품앗이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도 아니며 화폐가 거래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여성 공간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경제활동에는 이미 비자본주의적 경제 규범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잉태되어 있다.⁹⁾

9) 자본주의 경제와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경제들의 구분은 Gibson-Graham, J. K.(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o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p. xiii에 나오는 표를 참고할 것. 그밖에도 여성들이 수행하는 비자본주의적 경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현재 (2012), “코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여성주의적 도시권의 가능성: 김슨-그래함의

필자는 여성 공간이 갖는 생산적인 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쌍화차 코코아, 서울 드레서, 화장발 카페 등 미용전문 여성 커뮤니티 공간은 지배적 여성성만을 추종하던 여성 공간이 아니었다. 이들은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데모에 합류했으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가정까지 침범하는 것에 저항했다. 과천, 대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앗이의 사례들도 주목할 만하다. 과천에서 만들어진 지역 공동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앗이 활동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령 그녀들은 한 시간 단위로 자신의 노동을 책정하고 서로의 노동을 교환한다. 내 아이를 한 시간 맡기는 대신 머리 염색을 한 시간 해주거나 과외지도를 한 시간 해 주는 식이다. 여기서 노동의 가치는 자본주의적 시장의 가치체계에 따르지 않는다. 모든 노동은 공평하며 돈이 없어도 일상의 많은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은 곧 여성 공간이 새로운 공동체적 경제 관계를 생산하는 게임의 공간임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여성 공간을 다양한 여성 섹슈얼리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잉태되는 게임의 공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성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성들이 갖는 생산적 힘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여성 공간은 나약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4쪽을 참고하십시오.

6. 글을 나가며

이상으로 필자는 지배적 공간구조의 영향을 받는, 그러나 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여성 공간의 가능성이 절대적 용기 공간이나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을 통해 제대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자는 여성 공간의 변화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후자는 여성 공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성 공간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 공간을 제3의 공간 개념, 즉 가임의 코라 공간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라 개념을 도입할 때 여성 공간은 지배적 구조의 힘과 그 힘을 흐트러뜨리는 힘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가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코라에 내재하는 무질서의 힘이 단순히 불확정성이나 혼돈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가임의 코라 공간 개념이 비단 여성 공간을 사유하는 데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 개념은 여성 공간을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지만 사회과학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절대적 용기-공간이나 상대적 구성적 공간 개념이 갖는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임의 코라 공간이라는 개념은 폐쇄적이고 절대적인 구조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공간 내에 있음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모든 구조적 권력을 사상한 채 공간을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구성물로 바라보는 순진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공간 개념이 마련될 때 다양한 사례발굴을 위한 시각과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라이프니츠, 고트프리트 빌헬름(2007), 『모나드론 외』, 배선복 옮김, 서울: 책세상, Leibniz, G. W.(1714/1985), “Principes de la nature et de la grâce fondés en raison and La Monadologie”, in *Leibniz Werke, Opuscules metaphysiques*, ed. H. H. Holz,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슈뢰르, 마르쿠스(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31쪽, Schroer, M.(2006), *Rä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es*, Frankfurt: Suhrkamp.
- 아리스토텔레스(2008),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Minio-Paluello, L.(ed.)(1949),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Rec. brevique adnot. critica instr*, Oxford: Clarendon Press.
- 야머, 막스(2008), 『공간 개념』, 이경직 옮김, 서울: 나남, Jammer, M.(1969), *Concepts of Space: The History of Theories of Space in Phys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이현재(2010), “지워진 여성의 몸: 코라와 물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5-33쪽.
- _____(2012), “코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여성주의적 도시권의 가능성: 김순 - 그래함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4쪽.
- 플라톤(2000), 『티마이오스』, 박종현·김영균 옮김, 파주: 서광사, Plato(1902), “Timaios”, in *Platonis Opera, Volum IV*, ed. J.

- Burn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istoteles(1995), *Phisik, Vorlesung aus über die Natur*, Übersetzt von Hans Günter Zekl, in: ders.: Philosophische Schriften in 6 Bänden, Bd. 6, Hamburg: Meiner.
- Einstein, A.(1960), “Vorwort”, in *Das Problem des Raumes. Die Entwicklung der Raumtheorien*, XII-XVII, ed. M. Jamm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 Gibson - Graham, J. K.(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o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osz, E.(1995), “Women, Chora, Dwelling”, in *Postmodern Cities and Space*, ed. S. Watson and K. Gibson, Oxford: Blackwell, pp. 47-58.
- Löw, M.(2001), *Raum-soziologie*, Frankfurt: Suhrkamp.
- Marcus, S.(1992),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 in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ed. J. Butler and J. W. Scott, New York: Routledge.
- Moon, M., E. K. Sedgwick, B. Gianni and S. Weir(1994), “Queers in (Single-Family) Space”, *Assemblage*, 24(August), pp. 30-37.

원고접수: 2012. 04. 30

원고수정: 2012. 06. 13

게재확정: 2012. 06. 12

〈Abstract〉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Women's Space: from Empty Container to Pregnant Chora Space

Hyun-Jae Lee

In this paper, I will first look into two concepts of space, absolute space and relative space, which are dominant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physics. In the context of social theories, absolute space is considered as the structure of exclusive power and relative space as the construction of interactions of diverse agencies.

Second, I will show that women's space was understood neither through the concept of absolute space, nor of relative space. Many feminist theorists used to depict women's space as a weak, empty container, or a passive functional place, which carries nothing but the dominant norm like capitalism or phallogocentrism.

Finally, I will suggest the pregnant chora space as an alternative concept for women's space. Plato's concept of chora can be interpreted as a space in which structural and anti-structural power coexist and interact. So, with this concept, I can explain not only the phallogocentric structure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women's space, but the intrinsic capacity of women's space to transform it. Moreover, Gibson-Graham's concept of the pregnant space gives us a

possibility to interpret the anti-structural power of chora as a productive power that builds new social relations.

KEY WORDS: relative space, absolute space, women's space,
chora, pregnant space

